

未完成的 실제상황



김재원

『학력사항』

- 대구 심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前)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결위 위원장
-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17·19·20대 국회의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1987년도 제31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합격
- 1994년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I.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나가는 일만큼 싱겁고 어려운 일도 없을 성싶다.

더구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합격수기는 자칫 그 속에 포함된 고통이나 절망의 표현 없이 거드름만을 나타내주는 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험생활에 찌든 독자들을 분노케 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 더욱더 두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한 것 같다. 다만 筆者처럼 ‘그저 그렇게’ 공부해온 사람도 시험에 합격하고 글까지 쓰게 된다는 점을 보살피 독자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자극이 된다면 지면을 통해 ‘수다’ 떨어놓은 죄를 다소간 사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글을 풀어갈까 한다.

II. 시험을 보기까지

누구에게든 자신의 지난 시절은 애뜻하고 아름다운 것일진대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다지 기억하고 싶은 것이 많지 않음은, 잘못 살아온 탓일까. 아니 어쩌면 꿈을 먹고 살아갈 시절에 밀어닥친 ‘가난’이란 굴레 때문에 행복했던 순간순간이 밀려난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연유로 철들 무렵부터 어딘가에서 조여 오는 열등의식이 어찌면 나 자신을 승부에 강하도록 단련시켜 온 것이라 생각된다. 전산과에 지망했다가 탈락하고 재수를 해서 손꼽힐 성적으로 법대에 합격한 것도 그러한 승부의욕의 결과이리라.

대학입학과 더불어 집을 떠나 소위 유학이란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

재수라는 저주받은(그때는 그렇게 느꼈다) 생활을 끝내고 대학생활을 시작함으로써 기대와 설렘은 남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원자율화조치의 첫해이기도 했던 그해 봄, 늙으신 아버지가 이불보따리를 등에 지고 관악산 중턱에 마련된 기숙사에 들어가서 등 록을 하던 때의 감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기숙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풀마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했다. 룸메이트였던 형근, 부희, 그리고 지난 봄 명동성당에서 할복자살을 함으로써 내게 더없는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던 성만, 그들과의 생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삶에 대해서 생각되고 사회·역사 등에 눈 뜨게 했다.

지금도 철책선을 바라보며 말단 소총수로 있을 영호와의 만남은 나보다도 몇배 성실하고 인간적이며 스승적인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도 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남들과는 달리 내가 대학생활을 힘겹게 느껴야만 했던 것은 아마도 모든 것이 서투르고 어정쩡한 내 성격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역사철학, 변증법, 제국주의 뉴레프트, 종속이론, 한국경제... 이러한 것들이 당시 우리들의 이야기 주제였던가 싶다.

이영희 교수의 책을 읽고 후배 현중이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던 일,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을 읽고서 영호와 입씨름했던 기

억들이 모두 당시 기숙사의 풍속도이기도 했다. 2학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중심 없는 생활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다. 최종고 교수님의 지도아래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던 때가 계기가 되었었다. 法大에 들어와서 법조문을 처음 본 것이 그때쯤으로 기억된다. 사도법관 김홍섭이란 책을 읽고 나도 판사가 되겠다고 생각 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식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리라.

法書を 사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인 걸로 기억한다. 대구에 내려가서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동문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 그때부터 Arbeit도 시작해가면서 차츰 일과가 단순해지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지내는 일이 많아졌다. 修雅를 만나게 된 것도 내가 Arbeit를 하면서부터였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다. 꿈속에서 사는 듯이 보이던 그애를 좋아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내 생활이 너무도 말라버린 탓이었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한 축복의 일부분이리라. 영세를 받은 것도 그 즈음의 일이었다.

겨울방학 중에는 민법총칙과 헌법책을 한번씩 읽고 서울에 올라왔다.

Ⅲ. 행정고시의 공부

2학년이 시작되고 전공위주의 강의와 더불어 이제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내가 행정고시 공부를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즈음의 학내 분위기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존경하옵는 박세일 교수님의 가르치심과 나 자신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司法部보다는 行政府쪽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되었다. 아니 생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믿음이라고 할까?

여의도에서 Arbeit를 하면서 틈틈이 책을 보다가 그해 여름에 있는 제29회 행정고시 제1차에 응시했다. 응시라기보다는 대구 본家で서 형이 내준 원서 때문에 대구에 내려가는 재미로 시험을 보았다. 헌법, 민법총칙 교과서를 두세 번 읽고 그냥 본 것인데 커트라인에 5문제 모자라는 점수차로 떨어졌다. 낙방은 당연한 것이나 시험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1차시험을 경시하게 된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하다.

그해 여름 法大에서는 行政府에로의 뜻을 둔 선배들이 法經濟學會를 조직했는데 나도 당연히 가입했다. 박수용, 정규상, 송언석, 최상목, 신창동, 김영모, 안완기 선배 등 당시 4학년의 쟁쟁한 선배들과의 대화 속에서 시험을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존경하는 선배들을 많이 만난 것은 그 후의 생활에 있어서도 큰 길잡이였다. 우리 학년도 용로, 제흠, 영관, 진영, 현진 등과 함께 박세일 교수님의 지도로 경제학 등 전반에 걸쳐 세미나와 스터디를 병행해 나갔다.

그때의 經濟學에의 흥미와 함께 박세일 교수님의 Macroeconomics강의는 상승점목되어 후일 經濟學에는 무척 자신을 갖게 해주었기 되었다. 결국 法經濟學會의 활동과 박세일 교수님의 조언이 그동안 방황과 시행착오만 겪던 내게 있어 나침반이 되어 준 것이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 선배들은 방학 중에 공부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었고 나는 그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대구에 내려오자 곧바로 친구 상택, 명환과 후배인 홍석이와 함께 팔광산 기슭 도학동으로 들어갔다. 처음의 각오는 대단하여 이불 보따리와 책

을 한 짐지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 진짜 시험공부를 한다고 하는 의욕만이 있었지 고시원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공부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혀 모르면서 무턱대고 방안에 있는 다고 공부할 일이 아니었다. 한편 그해는 그때 대학시험을 끝내고 집에 있던 터라 시간이 흐르면서 고시원에 있는 날보다 대구로 나와서 그애와 같이 있는 생활이 늘어갔다. 명환이, 상택이와 밤새워 이야기하면서 시험공부의 의미보다는 평범한 인간의 삶에 주력한 것은 내 생활이 오히려 정상인의 생활방식과 근접해가는 징후이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대학생활 중 그 당시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던 것 같다. 서로가 서로를 원한다는 막연한 사실 속에서 시험공부는 별 진전이 없었다.

3학년이 되고 기숙사에 다시 들어갔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공부해야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기숙사 룸메이트이던 성봉이가 도와준 탓에 생활은 별 탈 없이 꾸려갈 수 있었다. 기숙사 같은 桐의 운석이와 함께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할 때가 많았다. 생활은 가급적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식사 시간 외에는 주로 7열람실을 이용했다. 3월부터 6월까지 기본서를 읽고 문제집을 한 번씩 풀어보면서 시험에 대비해 갔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시험 치르기 한주일 전에 식중독으로 고생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시기를 놓쳐 버리고 말았다. 시험은 대충 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구에서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나갔다. 그해는 Y대학을 휴학하고 재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단과학원에 들어가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때도 많았다. 그러던 중 시험발표가

나고不合格이 확인되었다.

후일 안 일이지만 한문제 차이로 시험에 떨어졌기에 그때의 충격은 굉장했었다. 서울로 전화를 해서 세번씩이나 물어보던 허탈감은 그후 내내 시험 준비를 어렵도록 만들었다.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와서도 내내 별다른 공부를 하지 못했다. 시험에 떨어진 자책, 자괴심과 함께 재수생활에 찌든 그애의 날카로워져 가는 신경이 더욱더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강의는 듣는 등 마는 등 했고 도서관의 창살이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던 중 나의 초조함으로 저지른 실수가 시험에 임박한 그애의 날카로운 신경에 더하여 둘 사이의 과정으로 치닫게 되었다. 털끝만큼의 자존심 손상도 허용하지 않는 그애를 내가 너무 무신경하게 대한 탓이다. 처음에 애써 태연하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사실들이 터질 것 같은 아픔으로 밀려왔다. 심한 자책과 고통으로 주위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그러한 내 행동을 '추태'라고 느낄 무렵에는 이미 우울증의 증세까지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이 약일 거라는 믿음이 그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당시의 고통과 절망을 기억해 내지 못한다. 다만 사건들만 남아있을 다름이다.』

그러나 그때의 광기어린 내 행동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IV. 아픈 시간들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그때도 역시 돌아선 그애에게 환심을 얻어보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였다. 그때마다 동문 선배인 경찬형, 선태형의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만화속의 주인공처럼 우뚝 서리라고 다짐하던 일들은 지금에서는 오히려 부끄러운 기억이다.

까지 Syndrome에 나도 빠져든 것은 그런 저간의 사정이 빚어낸 산물이었다.

그런 숨막히는 사정 하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경북 칠곡의 조그마한 마을을 찾아갔다. 거기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생활을 정돈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는 별로 낮지 않았고 대구에 나와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았다. 정신을 차리고 책을 읽을 수 없어서 차라리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결국 그곳에서 行政法, 國際法, 行政學, 民法의 서브노트를 작성했는데 특히 行政法은 내가 생각해도 잘 된 것이었으며 후일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시험 후에 친구 용인이가 행정법 서브노트를 빌려갈 때에 “그 노트에 내 눈물이 담겨있음을 잊지 말라.”하고 농담 반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내 진심이었다.

그곳에서 한 달 후 다시 집으로 나왔고,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부보다는 그애의 환심을 사기 위해 들개처럼 뛰어다니는 시간들이 더 많아서 공부량은 별로 없었다. 상택이가 늘 내 옆에서 도움을 준 것도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 일이었다.

시간은 남김없이 흘러서 겨울방학도 거의 끝나 신학기가 될 무렵, 그애의 태도가 무척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V. 홀로서기

2월 마지막 날인가 서울에 도착해서 룸메이트 성봉이와 함께 유명 고시원에 등록을 했다. 새 학기의 계획은 3학년 가을, 이미 성봉이와 함께 세워놓은 터였다. 특히 그간의 발작과도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생활태도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되는데로 살아온 듯 한 그간의 세월이 저주스럽기까지 했다.

그래서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단절하고 시험과 관련 없는 일은 저지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고시원 뒤쪽에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밥은 사먹고 공부는 고시원에서 했다. 수업은 일주일에 이를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의 공부량을 점검해 본 결과 1·2차 시험을 동시에 치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2차시험 준비를 하고 그 이후는 집중적으로 1차시험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차시험 준비는 1차시험 후 읽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약정리하고 가능하면 완전화 작업, 서브노트 등을 완료하여 1차시험 후에는 다른 책들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배려했다. 3월 중에 전과목을 정독하고 요약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2월 달의 공부량은 지난 2년간 해온 공부량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았다. 계획수립량보다 많이 나가서 결국은 경제학을 빼 놓고는 전과목을 note할 수 있었다.

4월이 되면서 세상은 바뀌어 가고 나도 그 틈에 그동안 다지고 다졌던 투지가 아이스크림 녹듯이 스르르 녹아감을 느꼈다.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하고 몇 시간씩 전자오락실에서 놀러앉아 있기도 하고 가끔 술을 마시기도 했

다. 法經濟學會의 멤버이기도 한 용호와 현진이가 늘 내 옆에 있어준 것은 내게 있어 부모님보다도 더 고맙게 느껴졌다. 그들의 뜨거운 우정에 나는 약간의 도움도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만 갖고 있었다.

새 봄기운이 농후해질 때 그애와의 관계도 차츰 호전되기 시작했다. 생활은 여전히 궁핍하고 어려웠지만 그애가 내게 보내준 자그마한 서신들 속에 잃어버린 행복이 찾아든 것처럼 기뻐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도 길지는 않았다.

학교의 중간시험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1차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2차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1차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힘든 것 같다. 다만 1·2차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기에 가능하면 2차시험 공부를 1차시험 공부와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차시험 준비기간을 짧게 잡을 필요가 있었다.

그만큼 집중적인 공부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2차시험 준비라하고 1차 공부를 등한시하여 당장 시작해야 할 공부가 너무나 부담이 되었다. 올해도 문전에서 미끌어지고 마는가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공부는 점점 두려워지고 그에 따라 잡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신경은 날카로워져서 약간의 불빛에도 깨어나곤 했다. 궁여지책으로 유리창에 알루미늄 호일을 발라서 방을 암실로 만들고 지쳐 쓰러지면 잠들도록 했다. 그런 생활을 엄청난 체력소모와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조장하는 것 같았다.

시험공부를 지속해가면 공부 자체보다 그 이외의 것이 더 많은 부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온다고 생각된다. 날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져감을 느낄 수 있었으나 생활이 궁핍해

저서 오히려 세끼를 라면으로 때워야 하는 때도 많았다. 낮과 밤이 바뀌진 생활은 극도의 불안과 신경쇠약을 초래하였다. 친구 성호에게서 “시체 같다.”는 말을 들은 것도 그 즈음인 것으로 생각된다. 나날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곤 했는데 약의 강도는 점점 높아져야 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수면제를 먹고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용호가 달려와서 뒷바라지를 해 주었는데 시험 일주일 전에 주사를 맞고 껌껌한 방에 누워있던 그날의 절망감은 잊을 수가 없다. 눈빛마저도 달라보이던 내 탓으로 그애와 거리가 멀어진 것도 그 다음날로 생각된다. ‘어차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그렇게 쉽게 생각하려고 애썼다.

허깨비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어김없이 1차 시험날은 다가왔다. 수면제를 먹고 나면 다음날 내내 정신을 못 차릴 것임을 알고 있어서 그날 저녁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평소 수면시간이 조정되지 않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급기야는 새벽에 찾아온 친구 탓으로 잠은 완전히 못 이루고 말았다.

어지러움으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시험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는 완전히 포기상태였다. 후배 준형이가 걱정을 하면서 줄곧 옆자리에 앉아서 시험장 입구까지 따라왔는데 그럴수록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시험이 시작되고 의식은 점점 몽롱해져가는 상태에서 오른손에 쥐 불펜으로 왼팔뚝을 피가 나도록 찢러가면서 시험을 치렀다. 복잡한 생각은 할 수 없었으므로 한번 읽고 비슷하다고 생각되면 답안지에 체크를 했었는데 원래 시간이 모자라기 마련인 첫 시간을 50분전에 끝내버렸다. 둘째 시간이 끝나고 답안지가

제출될 때 내 왼팔뚝은 피와 잉크로 얼룩져 있었다. 시험장 밖에서 만난 용호가 그것을 보고 울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여의도 고수부지에는 사람들이 뛰어놀고 멀리 유람선의 고동소리가 들릴 때 나는 내 자신의 초라함에 못이겨 집으로 내려갔다. 그동안 틀어진 그애와 만나서 사정이야기도 하고 솔직히 위로도 받고 싶었다. 그러나 대구에 내려가서는 그애 부모님께 꾸중만 듣고 만나지도 못하고 말았다. 그날 낮에 그애를 기다리면서 시내 허름한 영화관에서 혼자 보았던 ‘기쁜 우리 젊은 날’은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 있다.

그날 밤차로 서울에 올라오면서 시험공부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울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죽도록 저주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기에
이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살아있다.

나의 얼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홀로임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홀로서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해
촛불을 들자.』

서울에 올라와서 이틀을 쉬다가 일천고시원에 자리를 잡았다. 사실은 1차시험에 전혀 자신이 없으면서도 2차시험 준비를 하게 된 것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늘 벗이 되어 주던 용호도 집으로 들어갔고 할 일은 오직 책보는 것 외에는 없었다. 다만

책보는 일이 그토록 열심히 준비해 둔 2차 수험서가 아니라 이현세의 까치 시즈나 고행석, 박봉성의 장편 만화들이었다. 한자리에 앉아서 스무 권씩 만화책을 읽고 나면 세상이 온통 만화속의 이야기 같고 나도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이현세의 ‘겨울에 피는 코스모스’를 보고 룸메이트 윤석이와 진지하게 토론했던 것은 그때 무렵이었다. 때마침 현진이가 소개해 준 Arbeit는 그 당시 내가 즐겁게 한 유일한 일이었다. 유난히 더운 날에는 관악산 꼭대기를 혼자서 올라갔다. 육체적 피로가 정신적인 평화를 가져다주는 Paradox를 그때 체험했다. 산꼭대기에서 보는 세상이란 산 밑에서 산꼭대기를 보는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 세상만사는 그런게 아닐까.

시험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을 때쯤 1차시험 발표가 났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날에 전화를 통해서 합격확인을 받았다. 솔직히 기뻐다.

무엇 때문에 그동안 그토록 방황했는가 우습기도 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그날 그 노래의 가사가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은 것은 내가 느꼈던 치열한 고통을 삭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늘 나를 위로해주던 룸메이트 윤석이와 함께 현진, 용호, 진연, 성호 등이 모두 낙방의 쓴잔을 마신 것은 내게 아픔으로 다가왔다.

시험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에 한 과목씩 보아 나갔다. 국민윤리의 경우 형설출판사 교과서를 한번 읽고 줄쳐 두었는데 반복해서 2회독 했다. 그 나머지 과목은 시험전날까지 한 번씩 읽어 보았다.

국민대학교에서 치른 2차시험은 비교적 편하게 치렀다. 별로 부담을 느끼지도 않았고

체력에 무리도 없었다. 시험을 치르고 와서는 윤석, 준형이와 함께 전자오락을 하려갔던 기억이 새롭다. 정치학과 민법을 못 봐서 시험에 붙으리라고는 별로 기대하지 못했다.

시험이 끝난 후 대구에 내려가서 몇 달만에 그 애를 만나보고 올라왔다.

VI. 뒷이야기

2학기에 접어들자 행정학 공부와 영어공부를 좀 더 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박세일 교수일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조교노릇을 하게 되었다. 평온한 상태에서 법경제학 관계의 책을 보고 논문을 준비하는 사이에 발표일이 다가왔다.

2차 합격의 소식을 들은 것은 마침 法大 2학년 거시경제론 중간시험 답안을 채점하던 중이었다. 그때의 내 기분은 “별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 적당할 것 같다. 집에 전화를 걸어서 합격했다는 말을 전하자 목이 메어오는 아버지의 음성이 전선을 타고 다가왔다. 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때만큼 기뻐하시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래 시험에 합격하면 주위 사람들이 더 기뻐한다더니.” 스스로 태연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시험채점을 계속했다. 채점에 영향을 주면 안되니까.

그날 밤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같이 있던 준형이는 어린애같이 영영 울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그가 느끼는 세상의 슬픔을 나는 조금 이해할 것도 같았다. 그로부터 3차시험까지는 친구들의 축하를 받느라고 바빴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도 성적이 하위권이라 생각되어 불안에 떨었다. 막상 발표 후 알아본 성적은 오히려 상위권에 속했다. 시험 성적이란 그만큼 함부로 이야기 할 성질의 것

이 못되는 것 같다.

시험이 끝나고 내 생활에 여유를 찾게 되자 그애와의 관계도 빠른 속도로 호전되어 갔다. 어차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

올림픽 기간 중에 내가 수행했던 IOC advisor인 A. Takac가 자신의 연애시절을 이야기 하면서 자기의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3년간 싸웠다(fight)라고 내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fight라는 표현을 쓴 것이 무척 가슴에 다가왔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과정이 연습상황(training)이 아니고 실제상황(reality)임을 강조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리

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사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마치 자신은 또 다른 큰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人生의 무대에선 연습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실패와 시행착오도 결국은 그 자체가 한 토막의 희비극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시절의 힘들고 아팠던 기억은 시험에 합격하고 보다 큰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곧 내 人生이요, 내 생활이었다. “내 人生을 사랑하기에 나는 살아있다.”는 윤석이의 말은 그래서 타당하다.

오는 겨울에는 그애와 동해안에 다녀오리라고 다짐해본다.